

소폭직물을 표현매체로 한 섬유미술작품에 관한 연구*

한상혜

디자인학부 섬유디자인전공

<요 약>

현대섬유예술가들은 그들의 메시지 전달에 필요한 예술적 형태를 창조하기 위해 특정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표현양식을 사용하고 있다. 즉, 다양한 재료에 따른 혼합매체를 이용함으로써 특정한 구조와 형식에 제한 받지 않고 전통기법에서 발전되어진 작가 고유의 기법을 전개시켜 창의적 작품 이미지에 부합될 수 있는 방법으로 창작욕구를 표현하고 있다. 일상 생활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소폭직물은 섬유예술가들이 예술 형태로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표현매체이다. 본 논문에서는 섬유작품에 사용되는 소폭직물들의 재료와 기법을 분석함으로써 표현매체로서 이들의 창조적 잠재성과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Study on Fiber Artworks utilizing Narrow Fabric as an Expressional Medium

Sanghye Han

Dept. of Textile Design, College of Design

<Abstract>

Fiber artists are using various methods of expression to create artistic forms transmitting their message without restricting themselves to a specific style. In other words, they can express their artistic desire more creatively using the mixed media of materials and techniques to a certain fabric structure and style. Narrow fabric, used by various purposes in our daily life, is an expressional medium with the possibility to create various art forms by fiber artists. This study is carried out to emphasize the creative possibility and potential of

* 이 논문은 2000학년도 울산대학교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narrow fabric as an expressional medium by analysing its materials and techniques focused on fiber artworks.

I. 서론

1. 연구목적

오늘날의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은 표현 예술분야에 대한 조형적 시각을 크게 변화시켰다. 현대 섬유예술가들은 재료와 표현기법의 확장이라는 미술사조의 변화에 따라 공예적 차원에서 벗어나 생활주변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일상생활 속의 사물이나 자연물, 혹은 무의식적 내면세계를 통하여 얻어진 영감을 조형적으로 표현하였다. 즉, 직기로 짜여질 뿐만 아니라 직기에 의해 구성된 직물이나 로우프를 이용하여 wrapping, knotting, plaiting 등과 같은 기법을 도입하거나 felting, papermaking과 같은 전통적 섬유기법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환의 하나로써 소폭직물은 특별한 직조기법으로 짜여진 폭이 좁은 직물이나 산업용 테이프, 직물조각 등을 소재로 하여 새로운 형태로 창조함으로써 재료의 중요성을 인식시켰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섬유 기법을 확립시켰다.

또 다른 섬유의 표현기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소폭직물은 제작과정에서 공예의 특성을 포함하고 있으나 단순한 일반 재료의 소폭직물로 조형물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조직적 구조에 따른 조형적 효과와 미적 가치를 분석함으로써 소폭직물의 특성과 가치를 부각시키고 예술적 측면에서 조형적 효과와 가능성을 확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소폭직물은 좁은 형태로 짜거나 이미 천의 형태로 짜여진 직물을 좁은 형태로 잘라서 엮거나 꼬는 것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길게 만드는 기법으로 일명 '띠'나 '끈목'이라고 불린다.

본 연구는 문헌과 전시회 도록을 토대로 하여 창조적 매체로 이용되고 있는 소폭직물의 개념 및 발달과정, 특징, 그리고 사용재료를 살펴보고 소폭직물을 표현매체로 하는 다양한 기법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조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 섬유예술가들이 응용하거나 변형시킨 작품들에서 보여지는 표현기법과 특성을 살펴보고 그들의 작품세계를 이해하고자 한다.

II. 소폭직물의 일반적 고찰

1. 소폭직물의 개념

소폭직물은 직조나 니트(knit)를 이용하여 좁은 형태로 짜여진 직물과 천의 형태로 짜여진 직물을 잘라서 엮거나 꼬아서 길게 만든 것으로서 8인치(20cm) 이하의 직물을 일컫는다.¹⁾ 이것은 우리 고유의 표현으로 '띠'나 '끈목'이라고 하며 모두 폭이 좁고 길이가 긴 것을 총칭한다. 소폭직

1) Dan River Dictionary Dept., A dictionary of textile terms, Dan River Inc., South Carolina USA, p.67

물에 해당되는 생산물로는 벨트를 들 수 있으며 이것은 보통 밴드와 동일한 뜻으로 사용된다. 그 밖에 각종 테이프와 끈, 리본, 웨빙(webbing), 김프(gimp)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2. 소폭직물의 발달과정

인간생활의 시작과 더불어 몸을 보호하거나 사냥을 위한 도구제작에 사용된 것으로 추측되는 소폭직물은 원시시대부터 동물가죽이나 나무껍질을 좁게 찢어서 묶거나 매는 작업으로부터 비롯되어 여러 형태의 소폭직물들이 각 민족의 특성에 맞게 창조되었다.²⁾ 이것은 북·남미 지역은 물론 중앙아시아 일대, 코카서스, 아프리카 지역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역에서 제례장식, 제례의 복, 러그(floor rug), 동물 덮, 덮개(blanket) 등으로 널리 사용되었다.(사진1-3) 그 후, 이것은 일상생활의 실용품은 물론 점차적으로 구두 끈, 벨트, 소방호스 등과 같은 산업용도로서 사용되었다.



사진 1 아프리카 추장의 예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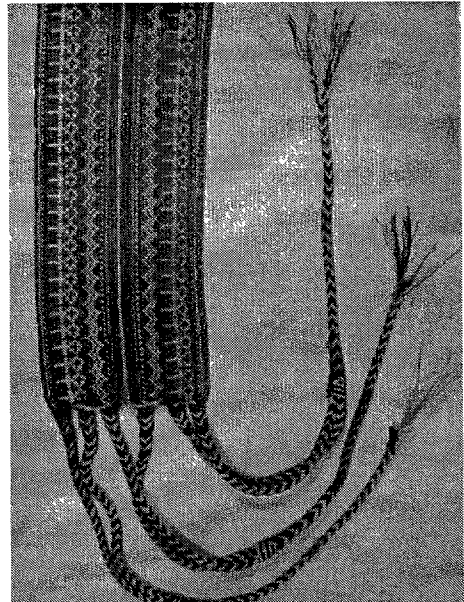


사진 2 이집트 람세스 3세의 거들

2) 송번수, 장경희, 현대섬유미술, 디자인하우스, p.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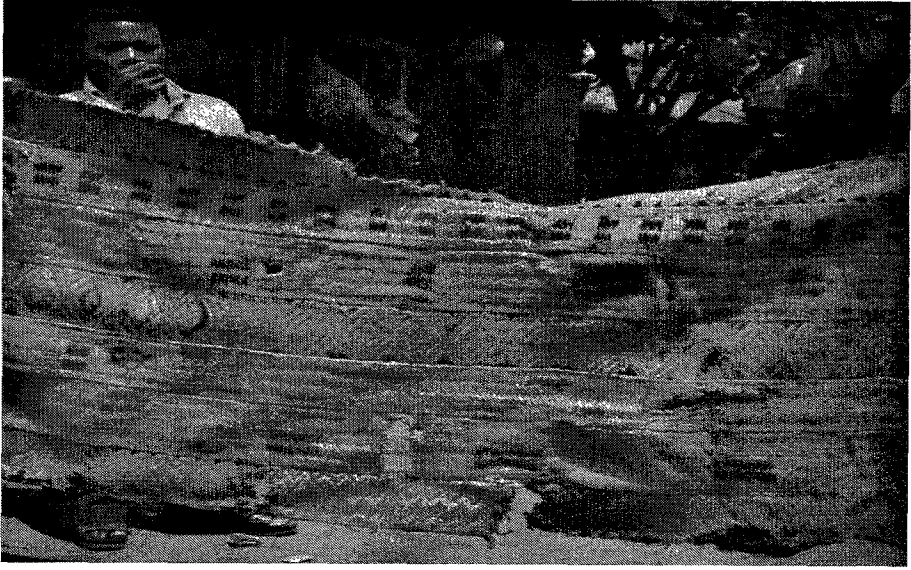


사진 3 아프리카인들의 장례의식에 사용되었던 Abata 직물

유목 생활에 기반이 되었던 소폭직물은 단순히 띠나 밴드와 같은 단순 기능으로서만이 아닌 구체적인 변형체로도 이용되었다. 즉, 평직(plain), 능직(twill), 레노(leno), 브로케이드(brocade) 등과 같은 다양한 직조방법으로 좁은 띠를 짠 후, 그것들을 직사각형이 되도록 서로를 연결하여 넓은 폭으로 만든 후 그것을 용도에 맞게 다양하게 사용하였다.(사진 4) 이처럼 소폭직물은 초기 텍스타일 제품과 디자인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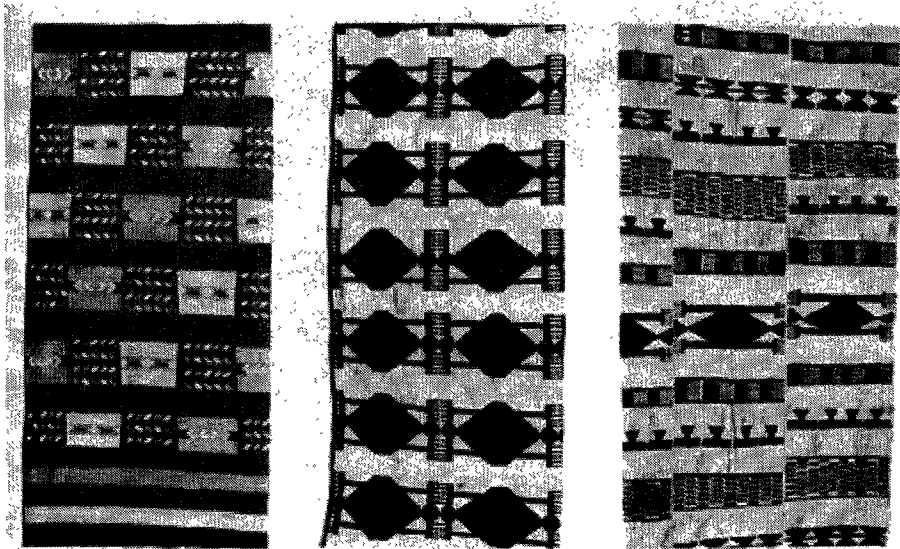


사진 4 다양한 직조방법으로 짜여진 아프리카 직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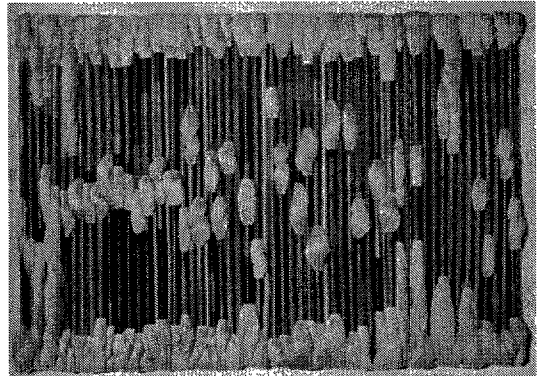
III. 소폭직물의 조직적 구조분석

1. 재료에 의한 분석

소폭직물에 이용되는 재료는 작가의 성향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다. 일정한 형식이나 재료사용의 제약 없이 길고 가는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것이면 어느 것이나 새로운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1) 실(Yarn)

실은 섬유 작품에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재료 중의 하나이다. 실꼬임의 강도, 방향, 그리고 실의 종류에 따라 외적인 형태의 변화뿐만 아니라 촉감, 직물의 느낌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또한 단순한 실꼬임에 의해서도 실의 강도 유지와 부피감, 질감 등의 효과를 높여서 작품에 사용될 수 있다. 실을 이용하여 소폭 직물을 만드는 방법으로는 잉클룸과 카드를 이용한 직조(weaving), 니팅(knitting), 브레이딩(braiding), 코바늘 뜨기(crochet), 매듭 짓기(knotting)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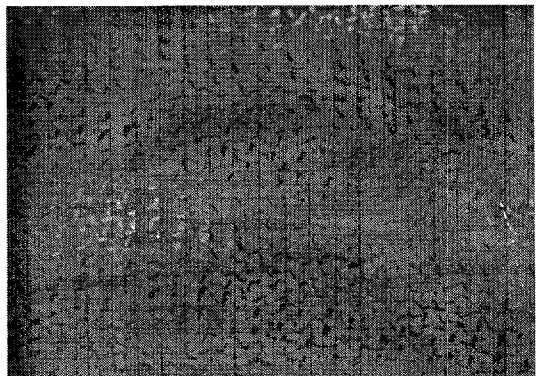


감기(wrapping)기법을 사용하여 많은 작품을 해온 Sheila Hicks는 'Saint-Jean-de-Dieu'에서 염색이 되지 않은 실타래를 광택있고 대비된 색상의 견사로 부분적으로 단단하게 감아서 수직으로 매달았다. 이처럼 여러 실타래들이 규칙성을 가지고 반복됨으로서 연속적인 리듬감을 줄뿐만 아니라 실자체의 꼬임과 부피감에서 긴장감을 느낄 수 있다.(사진 5)

사진 5 Sheila Hicks, Saint-Jean-de-Dieu, 린넨사, 견사, 면사, 150x190(cm)

2)직물(Fabric)

일반 직물은 섬유작가들의 전통적 매개물로서 가장 보편적인 재료이다. 천을 가위나 칼로서 좁은 폭으로 자르거나 또는 손으로 찢음으로서 섬유만의 독특한 느낌을 주는 소재를 얻을 수 있다. 리본이나 테이프와 같은 소폭직물도 표현매체로서 가능하다. 면, 나일론, 레이온, 폴리에스터 등으로 이미 짜여진 테이프(tape)를 그대로 활용하거나 또는 다양한 색상으로 염색하여 braiding이나 plaiting과 같은 엮기 기법이나 다른 섬유기법을 이용하여 옵티컬(optical)한 조형물을 표현할 수 있다.



Kris Dey의 '푸가'와 같이 부분적으로 염색한 산업용 면테이프를 좁은 막대기에 감아 그 유니트를 반복하여 배열함으로써 다양한 색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패턴을 이룰뿐만 아니라 옵티컬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사진 6)

사진 6 Kris Dey, 푸가, 면테이프, 60X90(cm)

3)플라스틱(Plastic)

‘섬유(fabric)’를 ‘천(cloth)’이라는 좀 더 포괄적 용어로 대체한다면 플라스틱 필름도 이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³⁾ 플라스틱은 우리 일상생활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오늘날의 첨단소재로서 현대인의 의식과 삶을 상징적으로 반영하는 재질이다. 소폭직물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유연한 성질을 지닌 필름, 비닐 등을 직조, 크로세, 니트 등과 같은 다양한 섬유기법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플라스틱 필름에서 현대적 이미지를 느꼈던 Arturo Sandoval은 비닐, 폴리에스터 필름, 사진 필름, 마일러 등을 소재로 하여 다양한 작품을 발표해 왔다. “... 나는 첨단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소재를 사용하기로 하였는데 그 이유는 바로 나의 작품은 내가 살고 있는 시대와 공간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플라스틱은 예술가의 정신적인 부분을 잘 표현해 주는 재료이다.”⁴⁾ 라고 언급했다. (사진 7)

이와같이 플라스틱이 지니고 있는 매력적인 표현 효과는 혁신적인 섬유작가들에 의해 현대적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컴퓨터 예술과 함께 작품의 개념에 영향을 주는 현대적 재료로서 더욱 발전되고 전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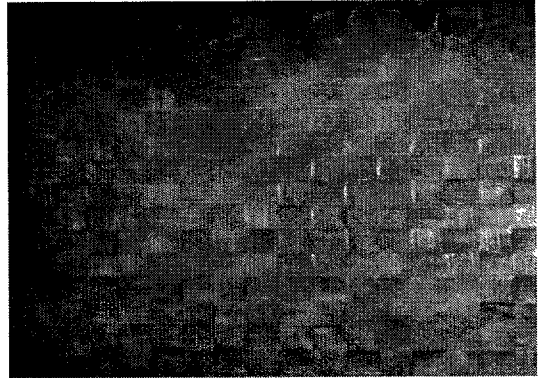


사진 7 Arturo Sandoval, 이끼낀 연못, 플라스틱, 마일러, 실, 270 x 270(cm)

4)가죽(Leather)

가죽은 인류의 시작과 더불어 사용되어 온 인간생활과 밀접한 물품으로 70년대부터 활용 가치가 높은 섬유표현재료로서 각광을 받아왔다. 일반적으로 군용 노끈이나 피대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예품 제작에 쓰였던 가죽이 weaving, plaiting 등과 같은 기법을 사용하여 조형물로서 창의적인 변모를 보여주어 왔다.

Claire Zeisler은 매우 부드러운 천연 가죽으로 자르기 기법을 이용하여 입체적이고 거대한 조형물을 창조하였다. 부분적으로 잘려진 좁고 기다란 띠들이 서로 이어져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폭포수와 같은 형상을 이루었다. 이처럼 그녀는 천연가죽의 유연적인 특성을 살려 섬유를 부드러운 조각형태로 변모시킴으로서 뛰어난 창의성을 과시하였다.(사진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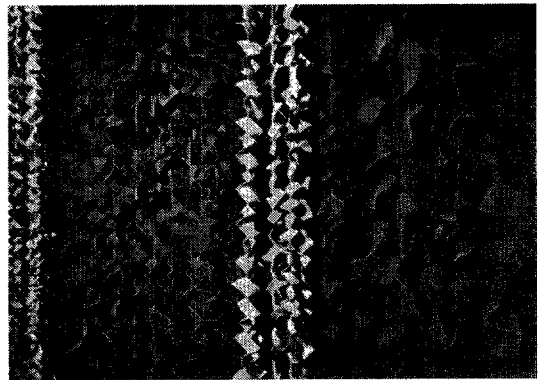


사진 8 Claire Zeisler, 붉은 숲 3(일부), 가죽, 300 x 300 x 180(cm)

5)종이(Paper)

종이는 옛부터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기 위한 매체로서 사용되어 왔지만 섬유예술 분야에서는 작가의 세계관을 표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의미 있는 형식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소폭직물에 이용되는 것은 수제종이 보다는 산업적으로 생산된 잡지, 신문지, 벽지, 등과

3) Constantine, Mildred/Larsen, Jack L., The Fabric:Mainstream, Van Nostrand Reinhold Company, p.64

4) Malarcher, Patricia, Plastics in Fiber, Fiberarts Jan/Feb 1985, p.56.

같은 종이를 직조나 엮기(plaiting)와 같은 기법을 사용하여 종이의 인쇄된 무늬나 활자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므로 조형적 또는 평면적인 이미지를 창조하고 있다.

섬유예술 속에서의 종이는 공예와 미술을 연결시켜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종이조형이라는 독자적 영역을 확대시켰다. 현대섬유예술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준 Ed Rossbach는 종이 띠와 엮기 기법으로 권총이라는 이미지를 표현하였다.(사진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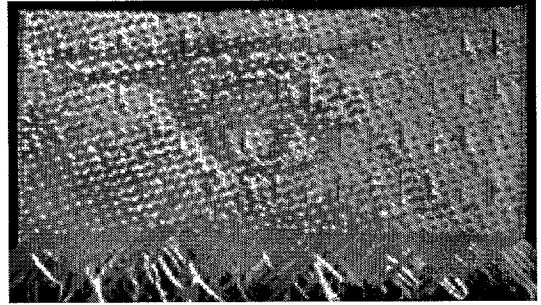


사진 9 Ed Rossbach, 권총, 종이, 79x125(cm)

6)기타

그 밖의 재료로 다양한 굵기의 철사 또는 판(slat)이 있는데 금속 특유의 광택과 매끄러움의 특징뿐만 아니라 쉽게 부러지지 않으며 불이나 오염 등에 강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공장소나 실외에 전시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소폭직물에 사용되는 다양한 재료들은 작가의 의도에 따라 선택되어 그 재료가 지닌 특성이 최대한 발휘되고 작가와 재료와의 관계를 밀접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2. 표현기법에 의한 분석

좁은 형태로 짜여진 직물은 선적인 특징이 강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미적 특성을 표현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밴드 형태로 짜여진 직물을 하나의 표현단위로 하여 여러 가지 기법들과 결합하여 평면적 또는 입체적 구조로 전개시켜 새로운 조형물로 창조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실제로 소폭직물을 이용한 섬유직물은 표현방법과 기법이 다양하고 자유롭지만 본 논문에서는 밴드형태로 제작된 표현기법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만을 언급하고자 한다.

1) 엮기(Plai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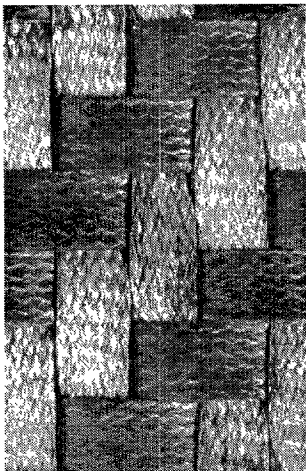


사진 10 수평 수직방향 엮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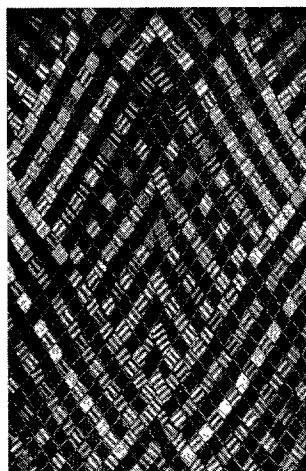


사진 11 사선방향 엮기

엮기는 섬유기법 가운데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직물구조법이다. 머리카락을 땋거나 바구니를 만드는 등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배어있는 보편적인 표현기법이지만 재료, 규모, 활용방법, 독자적인 미적 감각 등에 따라 새로운 조형형태로 재창조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진 기법이다. 이 기법은 경사와 위사가 구별되지 않으며 외양은 직조와 유사한 모양을 띄우고 있다. 엮는 방법은 두 가지 이상의 요소가 수평 수직으로 놓여지는 겹자무늬 방법(사진 10)과 수평 수직의 울을 대각선으로 놓고 엮는 사선방법이 있다.(사진 11)

이 기법은 주로 너비가 좁고 납작한 재

료를 사용하며 재료에서 오는 직선과 사선이 교차된 표면에 공통적으로 들어나는 구체적인 형상을 지닌 구조물이 표현된다.

엮기기법은 크기와 형태를 자유롭게 조형할 수 있으므로 1970년대 말 현대의 섬유작가들이 새로운 재료와 방법을 도입하여 조형작품을 발표함으로써 대단히 빠른 속도로 예술적 영역에 흡수되었다. 이 기법은 직조처럼 기법상 과격한 움직임은 없으므로 재료선택에 있어서 유연성이 크지 않아도 무방하다. 너비가 좁고 납작한 재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소폭직물은 물론 플라스틱 필름이나 고무줄, 밴드, 종이, 금속판 등과 같은 산업소재를 이용하여 질감과 조형적 표현방법에 다양한 효과를 줄 수 있다.

2) 비틀기(Twisting)

비틀기 기법은 단일한 면으로 구성된 작품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독특한 표현방법으로 소폭의 띠의 곡선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

폭이 좁게 제작된 직물을 시계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비트는 방법으로 평면으로 구성된 작품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효과를 나타낸다.(사진 12) 띠가 선형적 요소로 작용되어 직선과 곡선의 형태 위에 부조적 효과를 더해준다. 특히 비틀린 면의 부조적 형태에서 오는 그림자는 작품의 깊이를 더해줄 뿐만 아니라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꼬여진 형태 외각선에 나타나는 유연한 곡선과 띠의 반복성은 시각적 통일성과 풍부한 미적 표현을 이끌어 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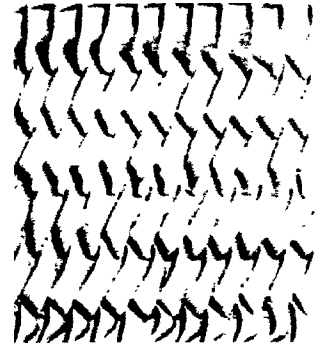


사진 12 비틀기

3) 접기(Folding)

접기는 접는 방법이나 각도의 변화에 따라 직선과 사선이 서로 엇갈리면서 다양한 형태의 면을 형성하게 된다.(사진 13) 이 기법은 접혀진 부분의 경계선으로 인해 구체적인 결과를 보여주며 직선의 효과가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와같이 밴드가 접혀져서 작은 면을 형성하고 그 작은 면들이 반복 배열됨으로서 정적 또는 동적인 리듬감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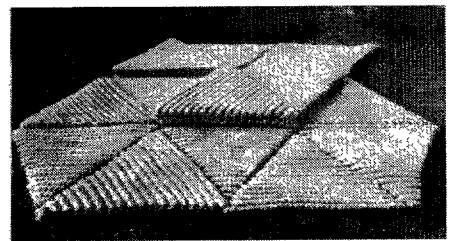


사진 13 접기

4) 늘어뜨리기(Drapp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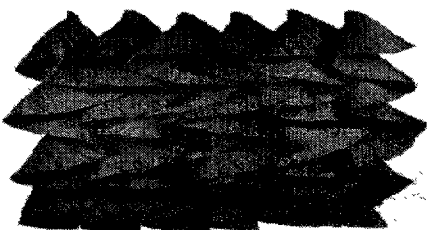


사진 14 늘어뜨리기

실이나 직물을 자연스럽게 늘어뜨리는 방법은 섬유의 부드러운 속성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외형적인 변화를 가하지 않고 그대로 늘어뜨리거나 주름을 잡거나 또는 기다란 띠를 계속 겹쳐서 늘어뜨리는 등 작가의 표현의도에 따라 다양하게 변형될 수 있다.(사진 14)

5) 묶기(Knotting)

묶는 방법은 유연한 속성을 지닌 매체를 매듭, 묶기, 또는 고리와 같은 방법으로 서로 연결시키는 것을 뜻한다.(사진 15) 이 기법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기법으로서 뛰어난 부조적 효과와 입체적 표현이 가능하며 특별한 기술이나 힘을 드리지 않고 입체 조형적 형태를 견고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묶기는 표현방법이 자유로와 섬유미술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색상의 차이에 의해 묶는 방법에 따라 혹은 빛의 방향에 따라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을 연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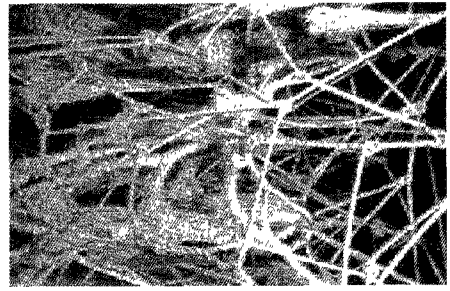


사진 1 묶기

6) 잡아당기기(Stretching)

이미 짜여진 소폭직물을 잡아당겨 어떠한 형태에 고정시키거나 다른 물체와 결합하여 잡아 당기는 등 인위적인 시도를 가해서 본래의 직물에서 느낄 수 없는 긴장감과 생동감을 부여할 수 있다.(사진 16) 이 기법은 섬유의 부드러운 맛이 배제된 딱딱한 물체와도 같은 성질을 나타내며 좁은 띠에 도입 요소를 가미시키거나 제 3의 요소에 고정시켜 날카로운 직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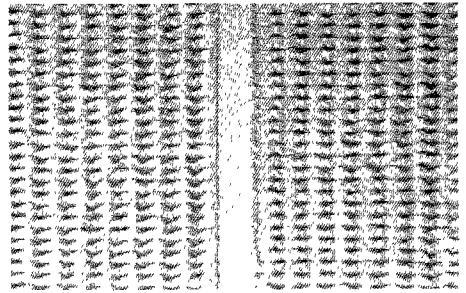


사진 2 잡아당기기

7) 매달기(Hang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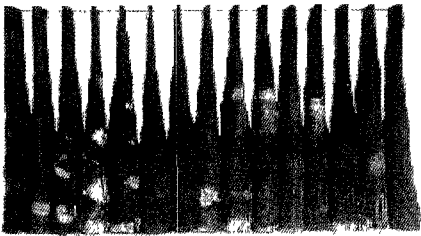


사진 3 매달기

각각의 띠를 인위적 행위를 가하지 않고 그대로 자연스럽게 매달아 효과를 제시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다.(사진 17) 이 기법은 늘어뜨리기 기법에 비해 직물의 중량이 밀도있게 작용되어 기다란 띠의 성격이 뚜렷이 드러난다. 따라서 각 띠가 지니는 특징에 의해 작품의 전체적 성격이 나타나게 된다.

IV. 소폭직물을 표현매체로 하는 대표적 작가들

1. 직기로 제작된 재료를 매체로 하는 작가와 작품들

1) 올가 드 아마랄(Olga de Amaral)¹⁾

소폭직물을 이용한 대표적 섬유작가로서 콜롬비아 보고타 출신인 올가 드 아마랄을 들 수 있다. 그녀는 말털, 생모, 린넨, 금박과 같은 독특한 질감을 가지고 있는 자연 섬유소재와 엮기 기법으로 강렬하고 자유로우며 여러 가지 색채가 함께 어우러진 기념비적인 작품을 지난 40년 동

1) de Admaral, Olga, 1932-현재, 콜롬비아 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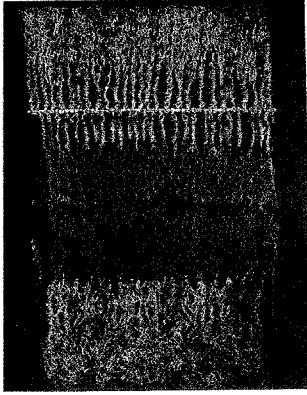


사진 18 칼리 칸토(Caly Canto).
엮기, 말털, 젓소, 19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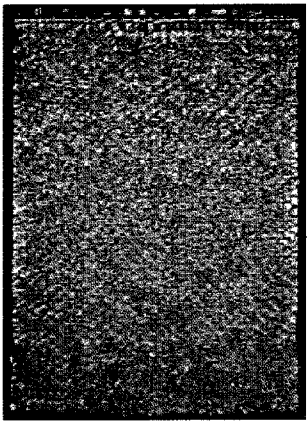


사진 5 몬타나 10(Montana
10), 섬유, 금박, 양피지,
아크릴, 75x132.5cm, 2000

안 꾸준히 발표하고 있다. 그녀는 주로 직기로 짜여진 좁은 띠나 테이프를 이용하여 엮기나 감치기 등과 같은 기법으로 경사가 두드러진 작품들을 발표하였으나 콜롬비아 원주민 인디오의 고유기법을 예감을 이루는 엮기 방법을 응용하기도 하였다.(사진 18)

풍부한 질감과 탁월한 기교감각을 소유한 그녀의 작품들은 하나 이상의 제작방법을 결합시키는 복합적인 표현방법이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어서 특별한 구조법을 찾아내기 어렵다. 특히 80년대 중

반부터 그동안 그녀가 즐겨 사 용했던 유기적인 섬유재료에서 벗어나 금박, 은박, 젓소, 종이, 린넨사, 사이즐 등과 같은 재료로서 제례적 분위기를 자아 내는 경사가 강조된 작품들을 발표하였다.(사진 19-20) 금박이나 은박을 제소와 함께 섞어 폭이 좁은 띠를 만든 후 대조 적으로 가는 섬유로 엮으므로 금박판이 서로 겹쳐지면서 여러 가지 색들이 빛의 방향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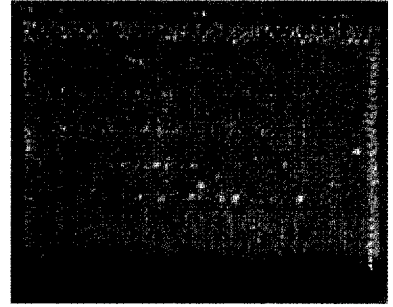


사진 19 리엔조 의식 13(Lienzo
Cermonial 13), 금박, 아크릴
페인트,면, 린넨, 200x138cm, 1991

따라 콜롬비아 이전시대(Pre-Columbian)의 고풍스러운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세계를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내가 작품을 창조하는 것은 어느 언어로든지 표현될 수 있는 비전을 전달하는 것이다. 나는 인생을 기쁨보다는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알게되었다. 그래서 나의 작품은 어머니와 같은 사랑과 고통이 담겨있다.”²⁾

올가 아미랄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소폭의 띠는 세련된 그녀의 기술과 함께 의미 깊은 조형 매개체로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2) 아델라 아커스(Adela Akers)³⁾

아델라 아커스의 작품은 시각적으로 단순하고 짜임의 특징을 쉽게 알아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성격을 띄우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그녀는 선의 움직임이라는 일관된 한가지 주제만을 꾸준히 연구해 왔다. 그녀의 작품의 디자인적 주 요소는 선, 빛, 그림자로서 이 세가지 요소가 합쳐져 하나의 의미와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발표한 작품은 가는 린넨사로 띠를 짠 후 그 띠들을 서로 함께 연결하였다. 선적인 울동감과 깊이를 더해주고 질감적 요소를 강조하기 위하여 말털(horsehair)을 제 2의 위사로 사용하였으며 여러 개의 띠들을 연결한 후 가늘게 자른 금속(재생된 포도주병 호일)을 작품표면에 바느질함으로서 아름다운 표면 장식을 창조하였다. 이처럼 그녀의 작품은 여러 과정들을 거쳐 수많은 띠를 제작한 후 그것들을 서로 연결하여 하나의 작품으로 탄생된다. 직선적이고 구조적인 구성으로 갖추어진 그녀의 작품들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섬세하고 여성스러운 우아함과 정적

2) Scarborough, Jessica, Olga de Amaral, Fiberarts, Jul/Aug 1985, p.53

3) Akers, Adela, 1933-현재, 미국 펜실바니아주 거주

인 동요를 불러일으킨다.(사진2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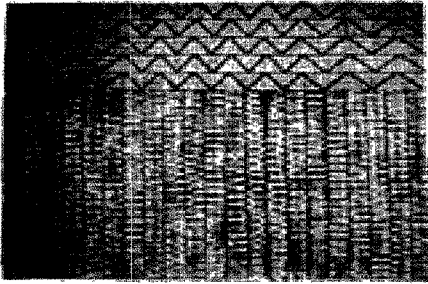


사진 21 그림자(shadows), 린넨, 말털, 페인트, 잉크 140x87.5cm,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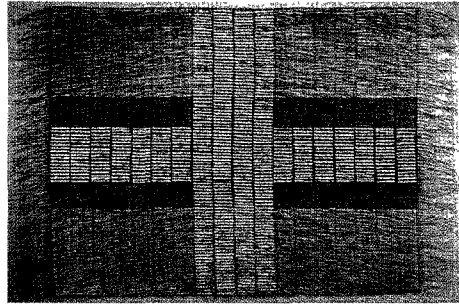


사진 22 code message, 린넨, 말털, 금속, 페인트,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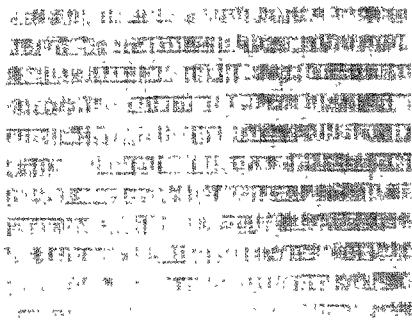


사진 23 간격(Intervals), 린넨, 말털, 금속, 페인트, 105x120cm,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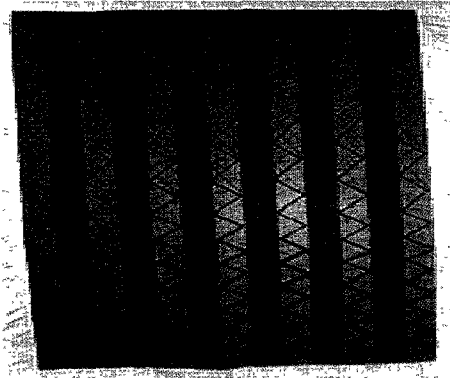


사진 24 베일(Veil), 린넨, 말털, 금속, 페인트, 112.5x175cm, 1999

2. 산업용 재료를 매체로 하는 작가와 작품들

1) 아르투로 산도발(Arturo Sandoval)⁴⁾

아르투로 산도발은 섬유조직의 구조를 현대산업재료와 결합시켜 그의 작품을 예술적으로 승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견되는 테이프, 플라스틱 필름, 비디오 테이프, 마이크로 필름 등과 같은 산업용 재료들과 고대인들이 즐겨 사용해 왔던 전통적 섬유기법인 엮기(plaiting) 기법을 사용하여 현대인의 생각을 상징적으로 반영하였다. 그는 '도시경관 #3'에서 광택나는 폴리에스터 필름을 기다란 띠 모양으로 잘라 거기에다 표면의 패턴을 얻기 위해 인화용 필름, 베일용 천, 마일러를 박아서 1:1 엮기 기법으로 필름 조각을 교차시켜 현대의 도시풍경을 창조하였다.(사진 25) 또한 '이끼낀 연못'도 플라스틱 필름과 마일러 베일용 천과 1:1 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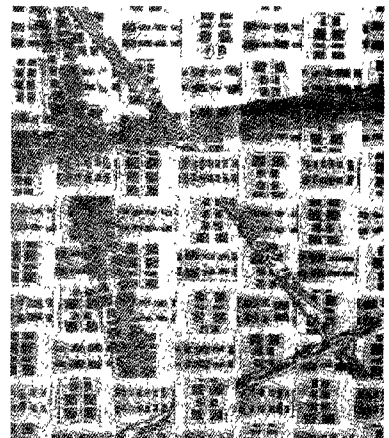


사진 11 도시풍경#3의 일부 마이크로 필름, 마일러, 210x210cm, 1977

4) Sandoval, Arturo Alonzo, 1942-현재, 미국 캔터키 거주

기 방법을 사용하여 만든 것으로 무지개 빛의 띠에 부분적으로 페인트 함으로서 표면이 오색의 빛을 발하고 있으며 빛의 방향에 따라 색이 반사되어 카멜리온처럼 색이 변하고 있다.(사진 7) 그는 그의 작품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섬유작업을 하는 다른 작가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나는 우선 테이프와 필름으로 생각되는 20세기 산업용 재료를 표현매체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재료들과 엮기 기법은 하늘, 물, 풍경과 같은 시각적 용어 그리고 국내의 정치상황, 테러리즘 등과 같은 사회적 이슈를 추상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나의 디자인 컨셉에 부합하고 있다.”⁵⁾(사진 26-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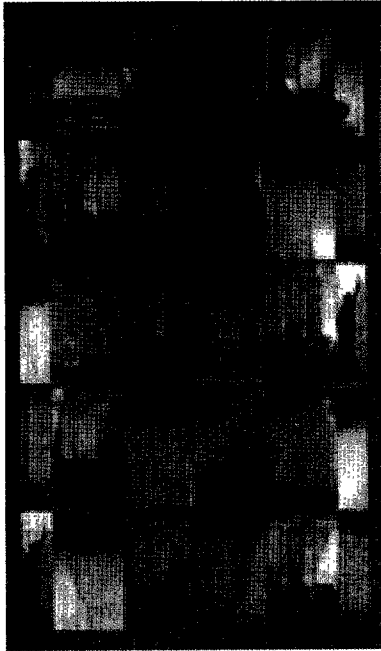


사진 12 자유의 여신 바빌론 II, 폴리에스터, 시바 크롬 포토, 먼, 150x215cm,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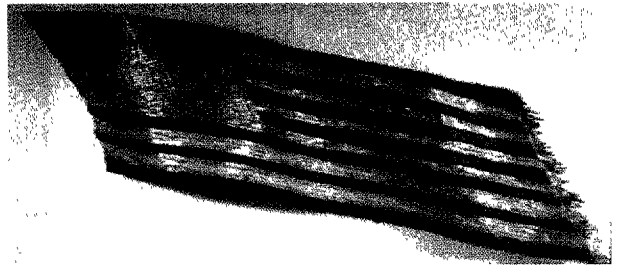


사진 13 State of The Union No.1, 플라스틱, 티슈, 신문지, 루텍스, 폴리머, 털, 225x125cm, 1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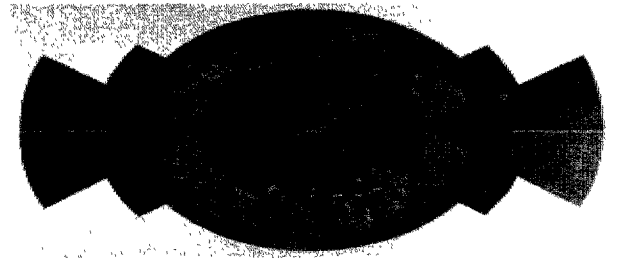


사진 14 Ground Zero No.10-바빌론IV 타켓, 마일러, 비디오 필름, 영화용 필름, 잡지 사진, OHP 필름, 종이, 페인트, 폴리머, 405x280cm, 1989

2) 셰리 스미스(Sherri Smith)⁶⁾

셰리 스미스는 전통적인 직조기법과 산업용 먼 테이프를 이용하여 옵티컬(optical)한 무늬와 색이 복잡하게 얽힌 기하학적 이미지를 창조하였다. 그녀의 작품은 복잡한 직물구조로 엮여진 벌집 형태가 믿기 어려운 아름다운 형상으로 공간을 채우면서 3차원의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그녀의 작품은 엮기 전에 디자인한 무늬를 만들기 위해 치밀한 계획 아래 테이프를 부분적으로 염색하여 세 단위의 요소로서 엮기 기법을 이용하였다. 약 2-3cm 폭의 세 가닥의 띠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엮어 마치 벌집같은 모양을 만든 후 이러한 유니트(unit)를 계속 반복함으로써 변화 있는 패턴과 풍부한 색상의 입체적 구조를 형성한다. 그녀의 70년대 제작한 ‘무연탄’(사진 29)과 80년대에 제작한 ‘은하계’(사진 30)를 비교하여 볼 때 후자의 작업이 보다 직접적이고 표현이 섬세할 뿐만 아니라 형태와 색감에 대한 깊이가 더욱 뛰어나 보인다. 즉 디자인에 있어서 그래픽적 요소

5) Sandoval, Arturo A., Artist's Statement, <http://www.arturoart.com>

6) Smith, Sherri, 1943-현재, 미국 미시간주 거주

가 더욱 두드러질 뿐만 아니라 형태에 있어서도 구체적이고 정리된 형상을 갖추고 있으며 다이나믹한 색조 변화에 따른 효과가 부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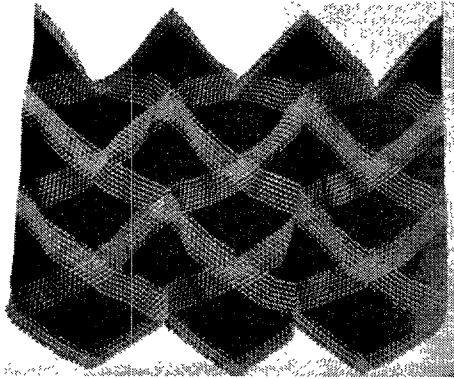


사진 29 무연탄, 면 테이프, 부분 염색,
345x240cm, 19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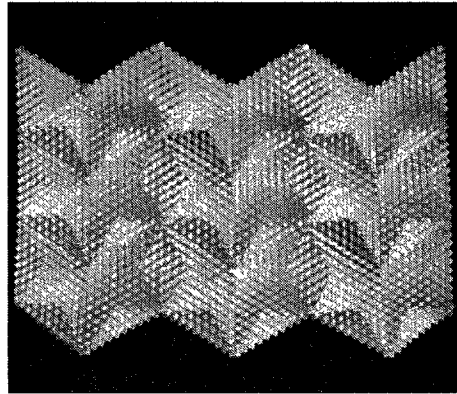


사진 30 은하계, 면 테이프, 부분 염색, 1987

V. 결론

현대섬유미술의 일반적 경향은 작품을 구성하는 재료, 기법, 구조적 형식, 표현의도, 사고개념 등에 대한 미적 추구와 그에 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소폭직물의 조직 구조는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던 소폭직물을 섬유예술가들에 의해 새로운 표현매체로서 인식되어 창작과정을 통하여 심미적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섬유예술가들은 소폭직물을 엮기, 접기, 묶기와 같은 전통적인 섬유기법을 사용하여 풍부하고 다양한 표현 효과를 제시하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첫째, 짜임의 속성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실을 구성요소로 하여 짜여진 직물구조에 비하여 소폭직물에 의한 직물구조의 규모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엮기와 같은 표현기법과함께 평면적인 면에서도 부조적이거나 입체적 효과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둘째, 다양한 표현기법을 이용하여 동일한 형태를 반복 배열하거나 무리(group)를 지움에 따라 창조적 표현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반복에 의한 전체적 조화를 중요시하였다.

셋째, 소폭직물이 선적 요소(line element)로 작용되어 매달기, 묶기, 잡아당기기와 같은 섬유기법으로 동적 또는 정적 효과의 독특한 조형성을 보여주고 있다.

를 주었다.

소폭직물을 표현매체로 하는 작품들에서 소재가 산업용 띠이던지 혹은 직조된 띠이던지간에 표현되는 작품은 소폭직물(재료)의 본질과 특성에 따라 형성되고 있다. 그러므로 매체가 가지고 있는 미적 특성은 소재와 기법에 구애됨이 없이 작가들이 좀더 자유롭게 다양한 형상을 창조하는데 기여하리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송변수 편저. 섬유예술. 서울: 디자인하우스, 1991

송변수/장경희 공저. 현대섬유미술. 서울: 디자인하우스, 1996

유선태. 현대섬유예술의 이해. 서울: 미진사, 1995

Constantine/Larsen. The Fabric: Mainstream.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Company, Dan River Dictionary Dept., A Dictionary of Textile Terms, South Carolina: Dan River Inc., USA, 1981

Held, Shirley E. Weaving. Florida: Holt Rinehart Winston, 1978

Lamb/Holmes. Nigerian Weaving. Lagos: The Shell Petroleum Development Company of Nigeria Ltd, 1980

Margetts, Martina. International Crafts. London: Thames & Hudson, 1991

Regensteiner, Else. Geometric Design in Weaving. Pennsylvania: Schiffer Publishing Ltd., 1986

Smith, Paul/Smith, Edward Lucie. American Craft Today. New York: American Craft Museum, 1986

송채경. 섬유예술의 Narrow Fabric의 표현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1985

Malarcher, Patricia. Plastics in Fiber. North Carolina: Fiberarts Jan/Feb, 1985

Scaborough, Jessica. Olga de Amaral. North Carolina: Fiberarts Jul/Aug, 1985

<http://www.tfaoi.com>

<http://www.fiberscene.com>

<http://www.sdgaller.hostme.com/catalogs/akers>

<http://www.snyderman.work.com/akers.html>

<http://www.arturoart.com>

<http://www.jra.org>